

의원 칼럼

누구를 위한 사임인가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지금 항간에는 박운국 전 시장의 사임을 놓고 비난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임의 변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그를 2차례에 걸쳐 선출해 준 것은 오로지 포천시장을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는 것이었는데 결국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주장은 민선4기 시장으로 다시 선출해준지 불과 1년5개월여만에 자동차로 비유하자

면 시동을 걸어 위망압한후 가속하여 전속도로 달려야 할 중요한 시점인데 어느날 갑자기 시장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매우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선출할때까지 6개월 동안의 시정공백과 새 시장의 업무과과 등을 감안하면 1년 이상 지역발전의 정체를 가져온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동안 박 전 시장이 벌려놓은 포천시 도시개발사업, 예코 관광휴양도시 건설, 포천공항공유치 사업 등 많은 대규모사업들이 대부분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추진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장 선거를 하려면 또 수억원의 선거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등 날이 갈수록 박 전 시장의 사임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자못 걱정스러워진다. 더욱이, 퇴임식에서 시장의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상황에 대하여 16만 시민들께

머리숙여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면서 분개하는 이들이 많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나 자신도 당혹스럽고 송구스러울 지경이다. 박 전 시장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지방경쟁과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과 대규모행사, 여러 민간경기장 등에 의한 대외적인 수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MOU체결,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대인홍보 등 재임중 많은 활동들이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넓혀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는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그간 박 전 시장이 실제로 지역을 위해 헌신한 부분까지도 매듭으로 훼손될 것 같아서 매우 착잡한 심정이다. 이밖에도 박 전 시장이 재임중 과거를 폄하한 발언을 놓고도 시중에서는 말들이 많다. 수많은 행사때마다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는 수십년 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며 잡지는 도시였다고 단골메뉴로 강론을 했는데 정

작 박 전 시장이 자신은 심각한 교통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해놓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포천인들이 무능해서 아무 일도 안하고 잠만 잤다는 것으로 비쳐져 시민들의 감정이 썩 좋지 않은 형국이라고 한다. 말끝마다 자신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으로 시민들을 들뜨게 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 요란한 빈수레였다고 혹평하고 있으니 그냥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세상만사에서 정상궤도를 이탈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섭리라고 한다. 16만 시민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개인의 야심을 위해 레일을 탈선한 박 전 시장이 겪을 일들이 결코 예사롭지가 않을 듯하다. 지혜로운 우리 16만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특별기고

戊子年の 쥐 이야기



박동규 영북노인대학장

대망의 무자년(戊子年)의 새 아침이 밝았다. 쥐는 지구상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설치류 포유동물로 야행성이 강하고, 번식력이 매우 높은 잡식 동물이다. 그래서 웬만한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강하여 급속도로 번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집쥐·들쥐·새앙쥐·일록쥐 등 10여종에 달하는 쥐의 종류가 있다고 한다. 쥐미 해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해이다. 쥐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식복과 함께 좋은 운명과 자손을 많이 거느리게 된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 그리고 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본능이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근면의 동물로 재물·다산·풍요·기원의 상징으로써 알려져 있다. 또 쥐는 선천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습성이 강한 동물이다.

쥐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40년대 이전에는 쥐악이 없어 쥐의 번식을 막을 길이 없고 똥을 놓기는 했으나 피해를 줄일 수가 없었다.

밤이면 새배들이 집단적으로 벽·천장·방바닥·문 등을 닥치는 대로 뚫고 마구 더나들면서 저장한 곡물을 훔쳐먹어 서숙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먹지도 않으면서 웬만한 생필품을 훔쳐서 망쳐버려 그 피해가 매우 컸다. 이처럼 쥐가 물건을 훔쳐서 결판내는 것을 서파(鼠破)·서설(鼠齧)이라고 하는 낱말이 등장했다.

그 당시 농가에서 음력 정월 첫 쥐날에 쥐를 쫓는다는 뜻으로 논둑·밭둑에 마른풀에 불을 쬐었다. 필자가 유년시절을 보낸 농촌에서 쥐날놀이를 하다가 웃에 불똥이 튀어 부모님의 걱정을 들던 일이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동네에는 병자년 쥐미 동강네가 너털 명이 서로 힘차랑·공부지랑하면서 다투며 성장했는데 6.25때 빨갱이 해어져 그 후 소식으로 유명(幽名)을 달리고 불평한 생활을 한다고 하니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을 금할 길이 없구나.

50~60년대 외국에서 구호양곡(救恤糧穀)을 선적해 임할 때 곡물 더미 속에 숨어 들어온 쥐의 번식이 급속도로 늘어나 창고에 살충제를 살포했지만 그 가운데 생존해서 다시 번식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 쥐의 박멸(撲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쥐 잡는 날을 정하여 쥐잡기 범국민운동까지 벌렸지만 쥐는 계속 번식하게 되었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쥐를 잡아 꼬리를 잘라 오게 하여 수합(收合)해서 시상까지 했던 일이 회상된다.

쥐를 나타내는 글자도 지지(地震)에서는 자(子)로, 일반적인 쥐는 서(鼠)로 표기하였다. 서(鼠)에는 쥐의 습성이 흙을 의미와 우물쭈문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는 쥐를 '혈충 사수선도(穴蟲 似獸 善盜)' 구멍에서 살면서 흙치기를 잘하는 짐승이라 했고, 우물쭈문하다는 의미로는 '수서랑단(首鼠兩端)' - 쥐는 의심이 많아서 구멍·구덩이에서 머리만 내밀고 관망하는 것처럼 양

편 중 즉 기로(岐路)에서 어느 것을 택할 지 진퇴와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관망함이라는 말을 통해 보신주의(補身主義)·기회주의(機會主義)·부화뇌동(附和隨同)의 의미로 군자·대장부·선비의 정신과는 멀다고 하겠다.

또 쥐는 구멍을 파 두고서 먹을 수 있는 곡식·과일 등을 훔쳐 날라가서 저장해 두고 먹는 습성(習性)이 있어 서적(鼠賊), 서도(鼠盜), 서절구루(鼠竊狗偷)·양상군자(梁上君子) 등의 한자어에 등장하기도 한다.

쥐는 덩치가 작지만 약삭빠라 인간에게 비유(比喩)하는 말로 쥐처럼 재빨리 달아나 숨는 것을 서둔(鼠遁)이라 했고, 서복(鼠伏)은 쥐처럼 몰래 재빠르게 숨는 것을 나타내고, 그밖에 음사(陰鼠)·은사(隱鼠) 등의 단어도 있다.

쥐를 하찮게 여겨서 보잘 것 없는 소인(小人)들에 비유해 서배(鼠輩), 담력(膽力)이 약해 서호는 말로 서담(鼠膽), 재력(才力)이 빈번치 못해 쓸모없는 것으로 서기(鼠技), 견해가 하찮은 좁은 모양으로 서목(鼠目)이라고 했고, 서간총비(鼠肝蟲臂)는 쥐의 간과 벌레의 팔로 모두가 하찮은 것을 나타낸 말이다.

궁서설묘(窮鼠齧貓)에서 궁(窮)자는 궁색(窮蹙)하디의 의미로, 설(齧)자는 물다·깨물다의 미오, 묘(貓)는 고양이이므로 사지(死地)에 몰린 쥐는 죽기로 하고 고양이를 깨물음으로 궁지에 몰린 약자가 강자에게 필사적으로 반항함을 말하고, 조공즉락(鳥窮頭驢)이란 말로 한자 새도 쫓겨 진퇴가 궁하면 도리어 상대를 주종으로 쫓음으로 약한 자도 궁지에 몰리면 강자에게도 대항함을 뜻한다.

쥐가 몸집이 작아서 하찮게 생각하고 여기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쥐구멍, 쥐꼬리만 하다, 쥐방울만 하다, 쥐뿔도 모른다, 쥐새끼 숨듯이, 쥐 잡듯이, 쥐 죽은 듯 하다.' 등은 순 우리말의 낱말로 우리말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쥐구멍에도 별빛 날아 있다'라는 속언(俗言)이 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 몹시 고생하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때를 만나 운이 트일 날이 있음을 말해 주어 실의(失意)에 찬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말이다.

쥐는 다산의 동물 중 대표적인 동물이다. 덩치는 작지만 번식력이 왕성하여 임신기간이 불과 3주, 출산 후 바로 발정(發情)하여 꼬미(交尾)하게 되어 한 쌍의 쥐가 10마리씩 연달아 5회 이상 새끼를 낳는다는 계산이고 보면 엄청나게 번식하여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게 된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다산의 상징으로 인간들의 부러움을 사게 된다.

쥐는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 중 서적(鼠賊)·서파(鼠破)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으나 근간에는 의학실험용으로 인간에게 이용되고 있다. 이인투어(以人投魚)·미물(微物)인 지렁이도 물고기가 좋아 한다라고 했으니 보잘것없는 동물도 쓸모가 있지 않은가 한다. 인간 사회에서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고 폄하(貶下)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다.

무자년(戊子年) 2월 25일에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 쥐미 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처럼 새로운 국정(國政)이 온 국민에게 풍요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피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에세이 60

선생님 찬가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카오스 이론의 본질을 파악하면 교육의 본질이 보인다. 학급경영을 하다보면 전혀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당혹한 경험을 자주하게 된다.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일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아니다. 다양한 교육이론과 학습실험을 바탕으로 교육자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해도 뾰족한 대안을 가늠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한 폭넓은 사고의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이라고 생각한다.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은 무질서 속에서의 질서를 규명하는

논리다. 계곡에 흘러가는 물, 해안가에서 간단없이 부서지는 파도,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구름이 제멋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만 내재한 규칙이 있다는 개념이다. 그 안에 자연의 유사성이 있고 결국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무작위의 파괴가 아니라 창조적 변화이며, 파괴를 통한 창조적인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카오스 이론의 본질이다. 뉴 트랜드는 많지만 이를 하나로 엮어주는 매개 트랜드는 없다. 컴퓨터와 사상, 과학과 종교가 서로 뒤섞이며 개념의 장벽을 허물어 가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주변의 삶 자체가 온통 혼돈 덩어리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뒤섞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종류의 음악이 동시에 유행한다. TV채널이 수십 개로 늘어난 것을 "다양성"이란 포장으로 간단히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남녀의 구분은 진작 사라졌다. 슈퍼마켓에서 은행 일을 보고 약국에서 편지를 부친다. 수백 년 동안 두개이던 남성정장

윗도리의 단추는 다섯 개까지 늘었다. 머리색도 제법 대로다. 다 중선택(multi-option) 시대라고 한다. 확률적 양자택일과 흑백논리는 거부당한다. 영역구분이 없어지는 무경계(cross-over)의 세상이다. 그렇다면 카오스 시대의 생존법칙은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그 해답은 바로 카오스현상에서 찾아진다. "혼돈"과 "카오스"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같을지 모르지만 "비선형 소자들의 불규칙한 변화와 결합을 파악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읽어내는 작업이다. 뉴욕 학술원 이사인 하인스 페이겔스는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내는 나라가 다음 세기의 초강국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갖고 교육을 담당해 왔던 세대와 디지털적인 사고를 갖고 교육을 담당하는 세대에겐 분명한 문화적인 구분 이 지어진다.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사고유형을 갖고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본질을 오도하는 결과

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카오스는 '비선형 소자들의 불규칙한 변화와 결합을 파악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읽어내는 작업이다.'고 정의했다. 불규칙적이고 변화무쌍한 시대에서의 교육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오스적인 접근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다. 학급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할 때도 아날로그적인 접근법으로 본다면 흑백논리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 그러나 카오스적인 접근법을 적용하면 합리적이고 맞춤형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카오스적 접근법은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면 모든 사안에 대한 사고의 패턴을 단순하고 흑백논리 로만 접근하지 말고 보다 불확실하고 무질서하다할 지라도 카오스적인 사고패턴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주문해 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제3기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 일동 -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은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문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사취재 후 제공 및 제보 등을 지원하는 봉사과 동시에 '기자단'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기 임원진

- ▶ 단 장 : 양근원(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 부단장 : 조은혜(운담초등학교 5학년 1반-초등학생 대표)
▶ 부단장 : 최나현(영중중학교 2학년 1반- 중학생 대표)
▶ 부단장 : 김기정(동남고등학교 2학년 1반-고등학생 대표)
▶ 감 사 : 원석연(포천고등학교 1학년 4반)
▶ 총 무 : 김용주(가산초등학교 5학년 2반)
▶ 총 무 : 이부원(이동중학교 1학년 2반)
▶ 총 무 : 최솔지(포천일고등학교 2학년 10반)

(초등학교)

- ▶박나현 가산초 5-2 ▶정소연 영평초 6-1 ▶정지은 축석초 6-1 ▶이지연 포천초 4-8
▶정홍택 선단초 6-2 ▶현혜선 도평초 5-1 ▶김용주 가산초 5-2 ▶김나연 영중초 5-1
▶오주현 신북초 5-1 ▶한석규 신북초 5-2 ▶김나현 화현초 5-1 ▶이다혜 화현초 5-1
▶권정아 유암초 5-1 ▶이유니 중리초 4-1 ▶박승균 보장초 6-1 ▶홍진현 외북초 6-1
▶유지운 정교초 5-1 ▶맹주희 내촌초 6-1 ▶허선영 내촌초 6-1 ▶김희진 내촌초 6-1
▶곽호영 관인초 6-1 ▶이현지 태봉초 5-3 ▶홍성지 신봉초 6-1 ▶백진호 삼정초 4-1
▶이주혜 송우초 6-5 ▶이재영 청성초 6-1 ▶이은비 노곡초 6-1 ▶박한아 왕방초 5-화성
▶신명성 청수초 6-1 ▶조은혜 운담초 5-1 ▶오동진 이동초 6-2 ▶임민정 추산초 6-대나무반
▶김진훈 이곡초 6-1 ▶이성무 일동초 6-1 ▶임민정 추산초 6-대나무반 ▶김진훈 이곡초 6-1
▶추기운 금주초 5-1 ▶양해화 지현초 5-1 ▶김혜리 영북초 6-2 ▶임미진(영북초 6-1)
▶김재원(외북초 5-1)



2007년11월10일 제3기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 위촉식

(중학교)

- ▶이예은 영북초 2-2 ▶김아름 대경중 3-1 ▶주술기 대경중 3-1 ▶이부원 이동중 1-2
▶김민정 관인중 3-1 ▶이상도 경복중 2-1 ▶하원중 경복중 2-3 ▶박원주 동남중 2-4
▶박정현 포천중 2-10 ▶전예림 일동중 2-1 ▶박하은 금오여중 1-8 ▶이예림 일동중 2-1
▶김단비 송우중 1-1 ▶윤재연 송우중 1-3 ▶김신화 포천여중 3-4 ▶최나현 영중중 2-1
▶김연수 동남중 3-4 ▶이유주 내촌중 2-1 ▶안중호 삼정중 1-1 ▶갈월중 이경수 2-1

(고등학교)

- ▶원석연 포천고 1-4 ▶오유리 송우고 1-4 ▶심송희 일동고 2-5 ▶김기정 동남고 2-1
▶이슬기 관인고 2-1 ▶이진실 관인고 2-1 ▶최솔지 포천일고 2-10
▶전현지 포천일고 2-10 ▶홍현표 영북중고 1-3